

세상 문화와 기독교 믿음간의 갈등과 해결에 관한 연구

-피터 버거(Peter L. Berger)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 철

(호서대학교 교수/기독교문화)

- I. 들어가는 말
- II. 문화의 영향력
- III. 헬라문화와 고린도 교회: 고전1:18-24
- IV. 근대서구문화와 교회의 반응: 합리주의 상황
- V. 오늘 우리 상황과 해결 방안 체험
- VI. 나오는 말

• ABSTRACT •

This study is designed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ower of the “invisible hands” in Adam Smith's term of society upon Christian faith. Since the believers live in the midst of societal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their belief is constantly at the risk of being confronted, contaminated, and compromised with other's belief. To show this risk and its consequence in Christian faith, this study investigates, with the help of Peter L. Berger, the Corinthian church in its early age where the risk prevailed and its consequence endangered the nuclear nature of Christian belief. The similar process took place again in modern Europe where rationalism and Christian faith were in conflict. Some believers proclaimed a war against the rationalism, and others took side with it, then being compromised. However, neither of them was successful enough to overcome the attack of rationalism. The success took place in unexpected place, that is, area of experience. The religious experience made it possible to get rid of the suspicion and uncertainty that the rationalism raised against Christian belief, for example, the virgin birth of Jesus, his walking on the water, his resurrection and so forth. Since this has been a “glittering allure” to those who suffered from the suspicion and uncertainty, churches that emphasized and offered religious experience to their members grew faster, which can be well verified worldwide in church growth map today.

Keywords: cultural conflict, Christian faith, sociology, Peter L. Berger

I. 들어가는 말

거대한 세상 문화의 영향권 아래서 과연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가능한가? 오늘날 교회와 교인은 세상 문화의 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세상 문화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묻고 대답 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 시대 문화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 범위와 강도와 지속성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사람들의 규범, 가치, 행위는 물론 사람들의 의식(意識)에 까지도 침투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 기독교인, 교회, 기독교 신앙도 그 영향력에서 예외일 수 없다. 때로 복음의 본질도 변형, 왜곡시킨다.

본 연구는 세상 문화의 이러한 영향력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끼치는 문제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대사회의 대표적 인 영향력인 합리주의 문화를 연구의 주제로 삼는다. 그리고 이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 문화의 영향력을 지식사회학적 입장에서 깊이 조명한 피터 버거의 이론을 활용한다.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 문화의“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은 물론 의식 영역까지 들어와 우리를 만지고 모양 짓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손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영역까지 침노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를 기대한다.¹⁾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할 대안이 무엇인지도 지적하고자 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 문화란 협의의 문화 개념, 곧 대중문화와 같은 좁은 의미

1)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사용한 용어이다. 비록 이 용어가 경제 활동을 설명하는데 활용되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 영역에서도 활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관, 가치관,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광의의 개념의 문화이다. 둘째, 이러한 문화의 보이지 않는 손이 교회와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의 본질까지도 변형시켰는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고린도 상황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다시 한번 근대 서구유럽의 합리주의 문화와 믿음간의 관계에서 찾아본다. 그 후 오늘 우리 시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합리주의 문화의 힘과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방안을 제시한다.

II. 문화의 영향력

영국의 사회학자 앤터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그의 책 『현대사회학』에서 문화의 힘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강한지 잘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우리의 삶을 모양 짓는 사회적 영향력”이다.²⁾ 이 영향력은 우리 사회의 거대 담론, 곧 가치관, 세계관,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세세한 영역까지도 모양 짓는다. 예를 들어, 어디서 살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사귄지 등과 같은 문제들이 모두 문화에 힘 아래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의 다양성을 비교해 보면 쉽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자장면을 생각해 보자. 한국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자장면을 맛있는 음식으로 생각하며 좋아한다. 배고플 때 자장면을 생각하면 입안으로 침이 흐르기도 한다. 그래서 점심을 중국음식으로 결정하고 자장면을 시켜 먹는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자장면을 보아도 먹고 싶거나 침을 흘리지 않는다. 자장면 자체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반응은 아주 다른 것이다. 이는 “자장면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자장면 문화는 그 문화권에서

2) 앤터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 김미숙의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1992), 29.

자라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물론 식욕과 자율신경-침을 흘리는 것은 우리도 통제하지 못하는 자율신경의 영역이다. 까지도 들어와 “만진다.”

문화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이다. 유아기 때부터 시작된 사회화과정(socialization)은 가정, 교육, 대중 매체, 사회적 상호 작용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문화의 지배적인 가치, 규범, 태도, 라이프스타일 등이 내면화 된다. 피터 버거는 이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세분하였다. 외재화(externalization), 객체화(objectific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이다. 외재화는 인간이 창조적 동물이라는데 근거한다. 사회 가치, 규범, 라이프스타일 등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³⁾ 그러나 일단 만들어지면 그것들은 사람들 밖에(external)에 존재하는 객체 혹은 대상(object)이 된다.⁴⁾ 그것들이 객체가 되는 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것들의 창조자로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 이 객체들은 내면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내 밖에 있는 “사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⁵⁾ 달리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가치, 규범, 라이프스타일 등이 내안에(internal)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장된 것에 따라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느끼면서 산다.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영향력은 우리들이 사회라는 구체적 상황에 거하는 한 피하기 힘들다. 굳이 피하고자 한다면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간혹 그러한 삶을 사는 개인 혹은 공동체가 있다.⁶⁾ 그러나 과연 그들의 삶이 얼마만큼 격리 가능했을까? 얼마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3) Peter L. Berger,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New York: Anchor Press, 1966), 52.

4) Ibid., 60.

5) Ibid., 61. 외재화, 객체화, 내재화에 대해서는 그의 책 『종교와 사회』 이양규 옮김 (서울: 종로서적, 1982), 16-37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다.

6) 예를 들어 시민 불복종을 쓴 헨리 쏘로우(Henry D. Thoreau), 종교적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필라델리아의 에미쉬(Amish) 마을이 그 예들일 수 있다.

피하는데 성공했을까? 남미 사회학자 오토 마두로(Otto Maduro)의 표현대로 “진공상태란 없다”고 보아야 한다.⁷⁾ 물론 사회화 과정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일탈, 범죄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탈과 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소수, 소량이다. 일부만 일탈, 범죄하고 그 범위도 사회의 기층 질서를 흔들거나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가 만들어준 질서에 따라 살며, 그러는 사이 사회는 여전히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III. 헬라문화와 고린도 교회: 고전1:18-24

피터 버거는 개인에 대한 사회 문화의 위치와 영향력을 연구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에 주의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을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7) Otto Maduro, 『Religion and Social Conflicts』(Maryknoll, NY: Orbis Books, 1982), 41.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⁸⁾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왜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복(18, 23절)해서 말했을까? 왜 “지혜”를 거둬서(8번) 언급하면서 헬라인들의 지혜에 대해 비판하였을까? 피터 버거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고린도는 헬라의 문화, 헬라의 지혜가 만연한 사회였다. 일반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헬라적 관점에서 보면 바울, 그리고 그가 전파하는 종교는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겨졌을 것이다.⁹⁾

이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신약학자 한스 콘젤만(Hans Conzelmann)이 지적하였듯이 고린도는 전형적인 헬라 도시였다.¹⁰⁾ 헬라문화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최고의 문화였다. 이 문화권에서 살던 헬라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들에게 있어 바울은 변방지역의 한 식민지 국가에서 온 이름 없는 전도자였다. 출신도, 행색도, 언어도 어설피고 이상하게 비춰졌을 것이다. 비록 그가 헬라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다른 유대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궁색하였을 것이다. 이는 마치 한국의 유학생이 미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알고 왔다 하더라도 본토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어설피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바울의 모습과 언어만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다. 그가 전파하고 있는 종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헬라인들은 매우 잘 발달된 신론(신화)에 근거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바울의 종교는 이제 갓 시작한

8) 개역성서 고전1:18-24.

9) Peter L. Berger, 『A Far Glory: The Quest for Faith in an Age of Credulity』 (New York: Anchor Books, 1992), 4.

10) Berger, 『A Far Glory』, 7.

것이다. 종교학자 에른스트 트렐취(Ernst Troeltsch)의 구분법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는 종교인데 반해 다른 하나는 종파(sect)였다.¹¹⁾ 당시까지 기독교는 경전(신약)도 교리도 종교조직도 성직계급도 제대로 없는, 미발달한 종파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가 전하는 종교는 고린도인들에게 하나의 이방 신앙 정도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은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¹²⁾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은 그들에게 기이하고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다. 특히 십자가의 도에 대한 가르침은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헬라인들은 많은 신들을 숭상하였고, 이 신들은 인간과 다른 신분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전하는 지혜와 능력의 신, 곧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이들은 별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의 가르침이었다. 곧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그 후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헬라적 신관에 따르면 이것은 있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며, 그것도 인간이 되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들에게-더 정확히 말해 그들의 지혜로 볼 때-어리석고 어설프고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생각이었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특유의 대담성과 능력과 지혜로 그 도시에 소수의 믿는 자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들을 함께 모아 신앙공

11) 트렐취의 종파-교회론에 대해서는 Ronald L. Johnstone, 『Religion in Society: A Sociology of Religion』 2nd ed.(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77-80; Meredith B. McGuire, 『Religion: The Social Context』(Belmont, Cal.: Wadsworth, Inc., 1981), 108-09를 보라.

12) 이는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선교 초기 미국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의 관심을 얻은 것은 그들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기 때문이다. 만일 당시 조선의 한 종교인이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였다면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졌을지 의문이다.

13) Berger, 『A Far Glory』, 5-6.

동체, 곧 교회를 형성하였다.

문제는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난 후에 일어났다. 믿는 자들의 수는 소수였다. 그 도시의 절대 다수는 이 이상한 가르침을 어설프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에서 소수가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피터 버거는 여기서부터 사회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개종자는 인지적 소수(cognitive minority)다. 반면 여타의 사람들은 인지적 다수(cognitive majority)이다. 인지적 소수가 인지적 다수와 한 장소 안에서 일상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한 인지적 다수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경우와 같이 인지적 소수가 믿는 것에 대해 다수가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설프다고 할 때는 더욱 그렇다.

피터 버거는 이에 대해 사회심리학적 실험의 한 예를 들면서 설명한다. 한 사회심리학을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클래스 학생들 10 여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그 교수는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 수업에 평상시보다 일찍 오도록 하였다. 그 다음 날 일찍 온 학생들에게 교수는 노란색 카드를 보여주며 무슨 색깔이냐고 물었다. 이에 그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노란색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 교수는 잠시 후 수업이 시작되면 나머지 한명이 올 텐데 그 때 다시 이 카드 색깔을 물으면 너무 당연한 듯이 오렌지색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얼마 후 마지막 학생이 수업에 들어왔다. 수업을 진행하던 교수는 다시 그 카드를 꺼내더니 마지막에 들어온 학생부터 카드 색을 물었다. 그 학생은 노란색이라고 하였다. 이에 그 교수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한명씩 돌아가면서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였고 이 학생들은 약속한대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오렌지색이라고 하였다. 그 후 이 교수는 다시 맨 처음 물었던 학생, 곧 노란색이라고 답한 학생에게 다시 가서 색깔을 물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처음의 확신과 달리 다소 자신 없는 목소리로 노란색 같은데 다시 보니 오렌지색 같기도 하다고 하였다.¹⁴⁾

이 예는 인지적 다수가 어떤 것을 너무도 당연한 듯이 여기는 것이 인지적 소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고린도 상황에 비추어 말한다면 인지적 다수(일반 고린도인)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설프게 생각하는 것을 인지적 소수(고인도 교인)가 계속 동일하게 견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¹⁵⁾ 피터 버거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두 집단간에는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이 전개된다고 설명한다. 먼저, 두 집단간의 갈등 및 대결(인지적 대결, *cognitive confrontation*), 두 집단간의 오염(인지적 오염, *cognitive contamination*), 그리고 타협(인지적 타협, *cognitive compromise*)이다. 이 “3C”의 과정은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공간에서 계속 상호 접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버거는 이 3C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두 환자의 사례 연구를 통해 시도한다. 자신을 나폴레옹(*Bonaparte Napoléon*)이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 의사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나폴레옹 황제라고 인식하는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던 중 자신을 나폴레옹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환자가 이 병원에 입원하였다. 의사들은 이 환자를 이 전에 온 환자와 한 방에 살게 하면서 상태를 점검하였다. 첫날부터 대단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서로 자신이 나폴레옹이라 우기면서 대립하였다. 큰 소리를 내어 싸우기를 반복하였고 어느 때는 조용하여 문을 열어보면 한 사람은 방 이쪽에 다른 사람은 방 저쪽에 앉아있었다. 그러다 다시 큰 소리가 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둘 사이에 아무 소리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문을 열어보니 두

14) 이 예는 피터 버거가 강의시간에 들려준 사례이다.

15) Berger, 『A Far Glory』, 7.

사람이 다정하게 껴안고 있었다. 의아해진 의사들은 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나폴레옹이라고 대답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자 그는 조세핀(Joséphine de Beauharnais)이라고 대답하였다.¹⁶⁾

자신의 지식(지혜), 생각, 인식을 너무도 당연시 여기는 두 사람(혹은 집단)이 동일 공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쌍방간에 대립과 갈등(confrontation)의 과정을 겪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 각자는 상대방의 지식이나 생각에 조금씩 오염(contamination)이 된다. 이 오염은 자신의 주장에 가려져 때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한, 다시 말해 격리되지 않고 만나는 한 오염은 피하기 어렵다.¹⁷⁾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다수가 소수로부터 오염될 가능성 보다는 소수가 다수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심리학 교수의 실험에서처럼 소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수 안에서 타협(compromise)이 발생한다. 노란색 같지만 오렌지 색 같기도 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이런 유의 것이다. 인지적 다수가 너무도 당연한 듯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구어적으로 표현하면, “말도 안돼!”)을 소수의 고린도 교인들이 변함없이 견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생각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다수들과 대립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염이 흘러들어오고 결국에는 타협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피터 버거는 실제로 그런 조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았다. 곧 후에 영지주의(Gnosticism)라고 알려진 종교현상에서이

16) 이 역시 버거가 강의 시간에 제시한 사례이다.

17) 설령 격리 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오염차단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역사상 많은 종파들이 오염을 염려하거나 피하기 위하여 격리를 실행하였으나 결과는 자신들의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 매우 급진적인 천년왕국운동조차도 오염에 노출되며, 따라서 오염을 피하기 위해 더욱 격리된 활동을 감행하기도 한다.

다.18) 그에 따르면 영지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기이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기독교의 그리스도론을 헬라 사람들에게 맞추어 덜 어리석고 기이하고 미련하게 보이게 하려는 타협적 시도이다.19)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뿐이며, 따라서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들에게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뿐이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 같이 보인 것뿐이라는 것이다.20)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에 타협점을 제시하고 기독교 신앙을 조금 덜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들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명백하게 이단적인 생각이었다. 그는 이 신앙의 위험성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곧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고린도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헬라인이 지혜를 찾으나 세상에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곧 십자가의 도)를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있는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21)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보내어 인지적 다수의 생각과 태도로 말미암아 흔들리거나 타협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인지적 소수들을 믿음의 본질에 견고히 세우고자 하였다.

18) 기독교와 영지주의의 첫 번째 대결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처음 기록되고 있으며, 이후 지역적으로 고린도를 포함한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로마 지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 I: 고대편』, 이형기, 차종순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165-71.

19) Berger, 『A Far Glory』, 8. 하르낙(Adolf von Harnack)도 영지주의를 “기독교의 예리한 헬라화”라고 주장하였다.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 I: 고대편』, 166에서 재인용.

20) 곧 가현설, Docetism이다. 곤잘레스, Ibid., 164.

21) 개역성서 고전 1: 18, 20-24절.

IV. 근대서구문화와 교회의 반응: 합리주의 상황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일, 곧 3C의 전개과정이 다시 발생하였다. 이번에는 시기와 장소가 근대 서구유럽이었으며, 발생요인은 합리주의적 사고의 만연이었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서구유럽은 이성 중시, 인문학의 발달,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합리적 사고를 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이전 시대와 다른 방법으로 신, 인간, 세상을 바라보게 하였다.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것은 미신적으로 것으로 인식되었다. 기적은 비과학적,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신과 그의 활동은 인간이 만든 신화이며, 신은 더 이상 역사와 삶의 주관자가 아니었다. 이제 인간이 최고의 가치 평가 기준이며 중심이었다.

이러한 합리주의적 사고가 서구인들의 의식 속에 점차로 자리 잡게 되자 기독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인식될 수 없었다. 오히려 이러한 합리주의적 개인들에게 교회의 가르침, 성서의 가르침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인식되었다. 특히 합리적 사고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나 주장은 더욱 그러하였다. 예를 들어, 성서에 나오는 신앙적 주장과 수많은 기적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심, 홍해가 갈라짐,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돌고 외치니 성이 무너짐, 예언자들이 죽은 자를 살림,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물위를 걸음, 예수님의 부활 등과 같은 것들이 그러하였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인지적 소수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다수였다는 것이다.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소수는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곧 인지적 대결, 인지적 오염, 인지적 타협이다. 처음에는 기독교의 주장, 성서의 가르침을 계속 견지하려고 하면서 인지적

다수와 갈등, 대립한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인지적 다수와 계속 접촉하게 되면서 조금씩 오염된다. 그리고 타협이 일어난다. 타협의 방향은 전과 동일하게 ‘어리석고 미련한’ 믿음의 내용을 보다 덜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 쪽으로,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에 맞을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일어난다.²²⁾

버거는 이 타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표가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의 비신화화 신학이라고 본다. 볼트만의 비신화화 작업은 버거가 보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서구 근대인들에게 성서의 내용과 신앙의 가르침을 덜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여-달리 말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어-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한 시도였다.²³⁾ 볼트만의 이러한 시도는 서구 근대인들에게 이미 인지적 오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맞는 타협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합리주의자들에게는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사항이었을는지 모르나 기독교 신앙 본질에서 볼 때는 위기였다. 과학적으로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가하여 성경의 내용을 신화적으로 인식하다 보면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왜곡,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비신화화의 흐름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동일한 대처가 취해졌다. 영지주의가 일어나 기독교의 중심 교리가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보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호소한 것처럼 동일한 시도가 행해진 것이다. 곧 칼 바르트(Karl Barth)의 신정통주의 신학이다. 신정통주의 신학은 합리주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본질이 위협을 받고 있는 서구 기독교를 향해 칼 바르트가 사도 바울적인 의도로 써 보낸 편지였다. 그의 서신의 중심 내용은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22) 피터 버거, 『이단의 시대』, 서광선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101-07.

23) Ibid., 107-21.

인지적 타협을 거부하고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지는 것이었다.²⁴⁾

바르트의 편지는 바라던 소귀의 목적을 성취하였을까?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⁵⁾ 고린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초대 교회에서 영지주의의 위치와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 같이 바르트의 시도도 그러하였다.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과 성서의 가르침이 합리주의적인 다수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신앙인이 인지적 갈등, 오염, 타협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의 전파는 물론 교인들의 신앙 성장도 힘겨울 수밖에 없었다.

V. 오늘 우리 상황과 해결 방안: 체험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가? 여전히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근대 서구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성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과학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합리주의는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지적 다수는 여전히 기독교의 가르침과 성서의 내용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 안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인지적 갈등과 부담을 겪고 있다.

이 신앙인들이 믿음을 아예 저버리지 않는 한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길은 일단 두 가지 이다. 먼저, 불트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독교, 성서의 가르침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신화, 미신, 신비주의로 치부하면서-그래서 인지적 다수의 인식론적 공격과 갈등을 피하면서-믿음을 유지하

24) Ibid., 75-85.

25) 버거는 신정통주의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본다. Ibid., 85-94.

는 길이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세상의 의견이나 지식과는 어느 정도 긴장과 갈등을 풀고 조화를 맞추어 가면서 살 수 있으나 성서의 내용과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확신 부족, 말씀대로 따라 사는 실천성의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나 의미에 대한 불확실성에 계속 시달린다. 그리하여-예를 들어-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이에 대한 이유나 의미를 신앙으로부터 찾거나 받지 못한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 길은 바르트에게 가는 것이다. 이들은 첫 번째 길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서로,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진리는 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유일하며 영원한 진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도 이미 인지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들의 의식은 과학적, 이성적 합리주의에 젖어 있고 기실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살 때-그것이 직장생활이든 학업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산다. 이런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서만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과학적이기는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식 안에서도 인지적 대결, 갈등, 타협을 겪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신앙에 반(反)하는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지식이나 발견들이 다가 올 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인지적 불안과 위협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자신들의 신앙에 반하는 지식이나 발견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으며 고집스럽게 전통에 붙으려는 모습을 취하곤 한다.

볼트만식의 신앙과 바르트식의 신앙은 합리주의라는 상황으로 말미암

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이다. 이 두 방식은 합리주의 상황에서 나름 대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결과이지만-위에서 보았듯이-결코 그 상황을 초월하거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초월과 해결의 실마리가 다른 곳에서 왔다는 것이다. 특히 합리주의가 비판하거나 무시하였던 체험의 영역에서 온 것이다.

합리주의에 갇힌 신앙을 해방하거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체험의 영역에서 올 것이라는 주장은 피터 버거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불트만의 시도도, 바르트의 시도도 현대 사회에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슬라이어마허(F. D. E. Schleiermacher)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⁶⁾ 슬라이어마허는 자유주의 신학자이지만 다른 자유주의신학자들과 달리 종교의 본질은 체험이라고 하였다.²⁷⁾ 버거는 체험이야말로 합리주의 상황에 갇힌 신앙을 해방하고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불트만도 아니고 바르트도 아니고 슬라이어마허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체험은 그러한 해결,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 창조론, 동정녀 탄생, 부활을 의심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이 오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면 밤 사이에 생각, 인식의 변화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체험이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체험은 수많은 회의주의자, 무신론자, 과학주의자, 이성주의자들이 회심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래서 합리주의 상황에서 체험은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매력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성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26) Ibid., 130-42.

27) F. D. E. 슬라이어마허, 『종교론』, 최신한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1997), 45-55;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 III: 현대편』, 이형기, 차종순 옮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457.

오늘날 전세계적 교회 성장의 추세를 살펴보면 주로 체험을 중시하는 교단,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앙의 가르침을 세상문화에 맞추어 현대화한 교회는 대부분 쇠퇴하고 있는데 반해 체험을 인정하고 중시하는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양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고는 두 학자의 책에서 매우 세밀하면서 정확하게 지적되고 있는데 하나는 영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마틴(David Martin)의 『Tongues of Fire: The Explosion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Harvey Cox)의 『영성·음악·여성』(『Fire from Heaven』)이다.²⁸⁾ 전자는 남미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개신교회, 특히 성령운동 교회에 관한 연구이고 후자는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보고 되고 있는 성령운동 교회의 성장에 관한 연구이다. 이 두 연구서 모두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체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회는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⁹⁾ 그리고 서구 세계에서 조차 체험 중심의 교회는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⁰⁾ 이는 유럽과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 곧 현대화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성령 운동이나 체험을 중시하지 않는 교회의 침체현상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더 괄목할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합리주의에 갇혀있던 신앙이 체험을 통해 해방, 초월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비 콕스는 그의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21세기에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두 가지 종교 형태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체험중심적 신앙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28) David Martin, 『Tongues of Fire: The Explosion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Cambridge, USA: Basil Blackwell Ltd., 1990); 하비 콕스, 『영성·음악·여성』, 유지황 옮김 (서울: 동연, 1996).

29) 피터 버거도 동일한 관점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피터 버거, 『세속화나? 탈세속화나?: 종교의 부흥과 세계 정치』, 김덕용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0.

30) 하비 콕스, 267-70.

근본주의다.³¹⁾ 이 두 가지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데 합리주의와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 전자는 체험으로 합리주의를 넘어서고 있고 후자는 합리주의에 대해 안하무인격으로 무시, 거부하면서 넘어가려 한다. 21세기 세계에서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성공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여러 면을 고려해 볼 때 전자가 성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전자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

VI. 나오는 말

고린도 교회를 영지주의로부터 어느 정도 구한 것이 바울의 편지 혹은 영지주의에 대한 초대 교회의 이단 정죄였다면 현대 교회, 교인들을 합리주의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체험일 수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철장(iron cage)이라고까지 명명한 관료주의와 합리주의 문화는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을 옳아 매고 있다.³²⁾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불트만도 바르트도 해답이 되기 힘들다. 그렇다고 안하무인적인 근본주의로 갈 수도 없다. 이제 남은 길은 체험일지 모른다. 피터 버거가 제시하듯이 슬라이어마허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일지 모른다. 슬라이어마허는 합리주의 철장에 갇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종교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듯이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며 형이상학이나 도덕, 혹은 이 둘의 합성물도 아니다. 종교는 우주의 영원하고 이상적인 내용과 본질에 대한, 그리고 무한자와 시간적인 존재 가운데 있는 영원자에 대한 경건한 직관이며 느낌이다.³³⁾

31) Ibid., 412-19.

32) 조나단 터너의, 『사회학 이론의 형성』 김문조의 옮김 (서울: 일신사, 1997), 220.

33) 슬라이어마허, 45.

참고문헌

-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 I: 고대편』, 이형기, 차종순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 III: 현대편』, 이형기, 차종순 옮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 앤터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 김미숙외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1992.
- 피터 버거. 『세속화나? 탈세속화나?: 종교의 부흥과 세계 정치』 김덕용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2002.
- _____. 『이단의 시대』 서광선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_____. 『종교와 사회』 이양규 옮김. 서울: 종로서적, 1982.
- F. D. E. 슬라이어마허. 『종교론』 최신한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1997.
- 조나단 터너외. 『사회학 이론의 형성』 김문조의 옮김. 서울: 일신사, 1997.
- 하비 콕스 『영성 · 음악 · 여성』 유지황 옮김. 서울: 동연, 1996.
- Berger. Peter, L. 『A Far Glory: The Quest for Faith in an Age of Credulity』 (New York: Anchor Books, 1992),
- _____.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Anchor Press, 1966.
- Johnstone. Roland, L. 『Religion in Society: A Sociology of Religion』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 Maduro. Otto. 『Religion and Social Conflicts』 Maryknoll, NY: Orbis Books, 1982.
- Martin. David. 『Tongues of Fire: The Explosion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Cambridge, USA: Basil Blackwell Ltd., 1990.
- McGuire. Meredith, B. 『Religion: The Social Context』 Belmont, Cal.: Wadsworth, Inc., 1981.